

Open Doors

2018. 8. Vol. 196

박해와 선교현장

터키 Turkey

Yellow ID

TALK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하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나는 중동 테러리스트의 만행으로 위태한 지경에 이른 인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여성 두 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인질들과 그 가족들이 안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을 거예요”라고 한 여성이 말했다. 다른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를 상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힌 것 같아요. 테러리스트나 독재자, 마약 밀매자, 범죄자 같은 사람들 말이예요.” 그러자 먼저 말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팔을 가볍게 토닥거리면서 위로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지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뭐라구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째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때때로 입을 여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그랬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했지만, 나는 그들을 잊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섭게 약화시키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로 계속 고민했다. 대단히 헌신된 그 여성들은 그릇된 교리에 빠져 있었고, 그들뿐만 아니

라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교리에 감염되어 있다. 다는 이 교리를, 더 나은 용어가 없어서 ‘운명론적 기독교’라고 부른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여성은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오류에 빠졌던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매님들, 회교도가 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분개하여 기분 나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은 회교 신앙과도 다를 것이 없다. 기독교에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정 반대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겠다는 결단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러한 틀 안에서 굉장한 멋진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다.



CONTENTS



04



06



14



16



18

04 북한 선교 현장_나의 출애굽기Ⅲ

06 박해와 선교 현장 터키-Turkey

14 2018년 어린이 박해 지도 신청해주세요.

16 오픈도어 사역

사회·경제적지원: 시리아(Syria)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중앙아시아(Central Asia)

20 북한 사역자 모집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오픈도어 지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3 2018, 시리아에 희망을

OpenDoors 2018년 8월호 | 통권 196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명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준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정규일,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루나, 리디아, 나오미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정규일 목사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시리아희망을: 우리은행 163-099071-02-101 (김성태)

순교자 자녀와 미망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가족트라우마: 우리은행 1005-001-88498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나의 출애굽기 Ⅲ

드보라



그렇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모순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게 여자가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언니는 대학을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언니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언니에게 경제나 회계 관련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셨다. 그래서 언니를 경제 관련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억지로 학교 교장 선생님 등하고 뒷문으로 사업을 해서 뇌물도 건네 주었다. 당시 러시아 빵이 귀했는데 그 빵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그렇게 겨우 대학 입학권을 하나 따내고 언니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공부

부족한 가운데 무리해서 시험을 봤던 언니는 결국 시험을 망치고 말았고 입학도 하지 못했다. 이 일을 겪고 나자 아버지는 분이 나서서 '애잇, 여자는 공부시키는 게 아니야' 하고는 나를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결국 내가 대학 갈 때가 되자 집에서 논란이 있었다. 부모들은 항상 나를 제외하고 남동생과 언니 위주로 챙긴다는 생각에 나는 더 반항적으로 행동했고, 부모님은 나를 대학 보낼 생각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등은 더 깊어졌다. 그래도 대학은 꼭 가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이다. 그

서 학교에서 대학 지망을 쓸 때도 1-3순위 모두 교원 대학을 썼다. 사실 점수를 생각하면 1순위에는 더 좋은 학교를 써야 했다. 보통 평양이나 수도권 대학은 1순위, 지방 주요 도시의 저명한 대학은 2순위였고 내가 가려고 했던 지방 교원 대학은 3순위 정도였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도 1-3순위를 왜 다 같은 곳을 썼냐며 의아해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이상하게 어린이 교사가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 대학 시험을 보았다. 약 1주일동안 면접을 포함해서 시험을 보았다.

이때 또다시 나는 부모님께 섭섭함을 느꼈다. 언니 때는 아버지께서 손수 여관방을 잡아서 1주일동안 함께 지내며 언니를 챙겨주시더니 내가 시험 볼 때는 출장 가신다고 그냥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출장 때문에 못 오신 것이긴 했지만 아니었어도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 확실했다. 특히 대학 면접에는 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나는 혼자 면접관 앞에 못 오신 부모님 사정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설명하기 급급했다. 화가 났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왔더니 아버지는 출장 갔다가 돌아오셔서 교원 대학 시험을 봤다고 나에게 화를 내셨다. 여자 대학생들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선생이 제일 입이 여물고 고집스럽다고 하시면서 나를 나무라시고는 평소 입버릇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팔자 안 풀린다. 시집을 잘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지께서는 출장을 다니시면서 해안 지역에 처자들이 염전에서 소금 밀차를 끌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셨는데 그 여자들이 다 대학 졸업한 여자였다고 한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보다 결혼을 잘해야 하는데, 괜히 많이 배워

서 입이 모질면 좋은 혼사 자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 북한에서는 여자가 대학을 졸업했어도 결혼하면 직장이 배치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학 시험을 보고 온 딸 앞에 그런 말 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결혼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대학 합격했다. 교원 대학에서도 소학교 교사가 아닌 유치원 교사 공부를 했다. 학업기간 2년에 훈련 6개월 해서 총 2년 6개월의 대학생살이었다. 북한은 대학 등록금은 없었다. 대신 학교 기숙사 밥이 형편 없어서 늘 배고팠다. 나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같이 지내는 친구들 중 농사짓는 시골이 고향인 친구들은 주말에 집에 갔다 오면 군것질거리로 옥수수나 콩 볶은 것을 한 움큼씩 가져오곤 했다. 그러면 그것을 숙소에서 나눠먹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다. 집에서 챙겨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갔다 올 때마다 나는 그 조그마한 간식거리를 가져가지 못해서 그냥 울면서 왔다. 염치가 없어서 애들이 간식 나눠먹을 때 공부만 했다. 그러다 보니 친구도 많이 못 만들었다. 이렇게 1년을 지내니 나중에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니께서 조금씩 간식과 용돈을 챙겨주셨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대학 공부 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다음 호에 계속)



터키 Turkey

-종교: 이슬람교 98%, 기독교 0.2%
 -인구: 81,898,583명
 -박해정도: 매우높음
 -수도: 앙카라 Ankara
 -주 박해요소:

터키는 기독교 박해 순위(WWL) 2018년 보고서에서 62점을 받았다. 이것은 2017년 보고서보다 5점 증가한 점수이다. 2016년 7월에 시도되었다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 내적으로 긴장감이 상승한 상태이다. 터키 정부의 공격적인 수사는 사회의 소수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입지를 크게 줄이고 있다. 교회가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면서 공공 장소에서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터키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터키의 공격적이고 광적인 민족주의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무슬림 배경을 가졌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압박이 가해진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은 그들에게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압박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은 진정한 터키인은 무슬림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터키인으로써의 자격을 의심 받게 한다. 때에 따라서 이것은 재판에 소환되거나 감옥에 구금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슬람 민족주의는 소수 민족 출신, 예를 들어 그리스, 아르메니아, 시리아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터키 사회에서 순수한 터키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여러 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민간 대립(Ethnic antagonism): 쿠르드 갈등으로 인해 지난 몇 년 간 부족간 적대감이 증가하였다. 특히 남동쪽의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내전의 위험성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쿠르드인들과, 터키 정부, 그리고 쿠르드족의 무장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독점적 권력을 이용하여 남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리아인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부터 몰아내려고 힘을 쓰고 있다. 부족 간 적대감은 주로 지방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대부분의 터키 내 기독교인들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족간 적대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2016년 7월에 실패한 쿠데타를 기점으로 에르도안 (Erdogan) 대통령 정부는 민주주의를 표방 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돌아서며 공개적으로 터키인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언론 탄압을 비롯하여, 현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은 모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현재 터키 정부의 직접적인 박해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니파 이슬람을 터키의 종교관으로 채택하였으며, 이것은 기독교를 크게 고립시키고 있다.

2. 박해배경

정부 관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 인사들이다.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이 터키를 기존의 세속 국가에서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바꾸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삼았으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이것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첫째로는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2017년 4월에 실시되었던 국민투표는 대통령에게 2 번의 선거를 더 치를 수 있는 자격과 기존보다 확대된 권한을 허락하였다. 소수의 외국인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아직 터키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박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재산을 두고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특히 터키 남동 지역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이유를 근거 삼아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하였는데, 개정된 토지 등기 법률과 지방자치제의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안보 혹은 보안상의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고 장악한 경우도 있었다. 터키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사회를 탄압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 연구원은 터키 정부가 이미 그 자취를 숨기고 있는 기존의 기독교 사회를 터키에서 추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비기독교인 정치 지도자들의 압박: 터키 정부에 의해 더욱 더 큰 추진력을 얻고 있는 터키 사회의 공격

적인 민족주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앙인들은 개종이 불법이 아님에도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주변 가족과 이웃 사회는 개종자들에게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올 것을 압박한다. 따라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개종 사실을 숨기며 일종의 이중 생활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이혼 혹은 상속권의 박탈을 위협받기도 한다.

정치 정당: 2017년 7월에는 야당인 공화인민당(CHP)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의미의 정의의 행진을 조직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 행진에 동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어떠한 야당도 직접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 같은 상황은 기독교 사회를 정부의 박해에 취약하게 만든다.

민족 지도자들: 시골 지역에서는 민족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터키 남동 지방에서는 쿠르드 민족 지도자들이 시리아인들을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던 땅으로부터 몰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쿠르드의 쿠르드노동자당(PKK) 또한 시리아인들이 현 터키 정부와 국가주의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도록 의도적으로 양자간의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관료: 2016년 7월에 시도되었던 쿠데타에 대한 반발은 고조된 양극화와 대통령 에르도안의 정치적 방향성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희생 제물 삼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 중인,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 당한 페툴라 굴렌(Fethullah Gülen)을 미국이 쿠데타 모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터키에 인도하지 않은 이유로 터키와 미국 사이에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양 국가 간의 관계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는 이유로 터키 내 기독교인들은 종종 서방 세계의 스파이로 그려진다. 개신교 교회에 대한 혐오 발언 또한 증가했고 대체적으로 여러 기독교 사회들은 박해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세력간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이다.

터키의 내부 상황: 2002년부터 터키는 국내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재창조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서방의 세속 국가라는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슬람을 터키 사회의 근간이자 기초로 세우고 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서방 세력과의 동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터키는 중동 세력과의 연합을 꾀했다. 그 이후 터키 정부의 목표는 터키를 중동 지역의 중심적인 국가로, 그리고 주변 국가의 롤모델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과는 달리, 지역적인 관점 그리고 국제적인 관점 모두에서 이러한 국가 계획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003년 에르도안(Erdogan)은 터키의 총리로 선출되었고, 2014년에는 터키의 대통령이 되었다. 2015년 5월에 시행된 선거에서 정의개발당(AKP)은 의회에서 다수당으로써의 지위를 잃었으며, 연정을 위한 협상 또한 실패하였다. 2015년 11월에 다시 시행된 선거에서 정의개발당(AKP)은 다시 다수당으로써의 지위를 되찾았다. 2016년 7월 15일에는 쿠데타가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현재 미국에 피신해 있는 페툴라 굴렌이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 되고 있다. 페툴라 굴렌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이자 에르도안과는 과거의 동지 사이였다.

2016년 7월에 실패한 쿠데타를 기점으로 터키 사회는 급진적으로 변하였다. 정부는 독재적인 정치 권력을 사수하였고 국가주의와 사회 내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많은 교사들이 굴렌 운동(Gülen-

movement)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고발되었으며, 학교장은 이슬람성격의 정의개발당(AKP) 충성적인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쿠르드 무장단체와의 충돌이 심화되었고 터키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도 더욱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주변 국가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군사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주로 쿠르드 세력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의 강경한 정책들로 인해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불관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비-수니파 시민들에 대한 압박이 실질적인 폭력 사태로 표출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각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터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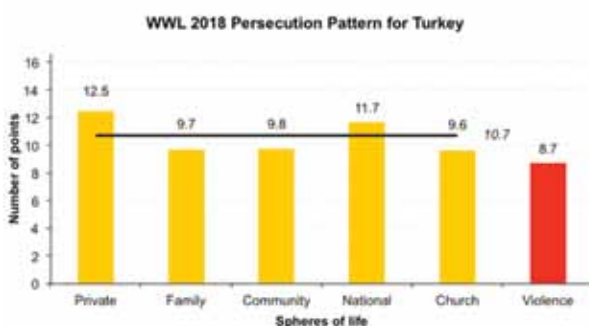
■ 터키의 기독교인 박해는 WWL 2018에서 9.8에서 10.7로 증가했다. 터키 정부가 2016년 7월 쿠데타 이후 취한 가혹한 조치 때문이다.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대신 모든 쿠데타 혐의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사법부 내 많은 공무원들을 교체함으로써 에르도안 대통령은 법치를 훼손시켜 터키 내 소수 민족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





■ 순혈 터키인이 수니파 무슬림인 땅에서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채로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어 억압은 개인 영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 폭력 점수는 WWL 2017에서와 같이 매우 높은 수준(8.7)으로 남아 있으며, 기독교인의 전반적인 지위는 아직 향상되지 않았다.



개인 영역

법으로 개종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또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에 사회적, 가족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가족에게 받는 억압의 수준과 성격은 가족의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기독교로의 개종은 받아 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이중 생활을 하고 개종을 숨기는데, 이는 숨어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기독교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종류의 억압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신체적 폭력이 없으면 거의 보고되거나 문서화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비전통적 교회로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교회의 억압이 따른다. 이것 또한 문서화되거나 보고되지 않는다. 기독교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동료 신자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 영역

비록 신분증의 종교란에 합법적으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바꿀 수는 있지만, 어렵고 고통 받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신분증에 이슬람교가 적혀있다면, 개종자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개종자가 신분증에 종교적 소속을 변경하지 않는 한, 모든 아이들은 자동으로 수니파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기독교로의 개종이 알려지면, 개종자들은 이혼의 위협에 직면하거나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독교 공동 묘지 신청은 일부 지역에서 거부당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비 무슬림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나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이 공동묘지로 사용한 곳에 매장돼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독교인의 자녀, 특히 개종자의 자녀는 사회의 종교적 편협성이나 민족주의적 열정 때문에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 개종자의 배우자는 종종 이혼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공동체 영역

개종자들은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라는 강한 억압에 직면한다. 무슬림이 아닌 아이들은 듣지 않아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업을 듣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혹은 교사가 그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기독교학생들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 의해 수업에서 계속 차별을 당한다. 터키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독교인은 있지만 대학 수준에서 높은 직책이나 교수직은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인은 정부 고용에 접근할 수 없으며, 특히 고용주가 정부와 연계되어있는 개인 고용에서는 차별을 경험한다. 신분증에 종교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지원자를 차

별하는 것은 매우 쉽다. 기독교인은 터키에서 소외되고 사회에 의해 2류 시민으로 취급된다.

국가 영역

터키 헌법은 종교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개종자들(특히 남동부나 다른 시골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를 쉽게 알 수 있는 신분증 때문에 경찰과 보안군에 의해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세우거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얻기 위한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의무적인 군 복무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접근, 국가의 보안 장비 및 법 집행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으며 군대의 승진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더 이상 종교란이 표시되지 않지만 카드의 칩에 여전히 등록되어 있다. 이 나라의 민족주의의 대두는 비무슬림 기업 소유주들에게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보도에 따르면 족벌주의가 정의개발당(AKP)의 집권 하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과 칼럼니스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협함과 편견에 대한 몇 가지 보고가 있었다. 기독교 소수 민족이 관련돼 법정 사건에서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특히 굴렌운동(Gülen-movement)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이유로 정부가 4,000명이 넘는 사법부 구성원을 축출한 이후 더욱 그렇다.

교회 영역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가 '협회'로 등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이는 또한 어려운 과정이며 일부 신청은 거부되었다.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터키의 비밀 경호국(MIT)은 기독교 단체와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예배 중 교

회를 보호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 국가 그룹(IS)의 위협을 받은 이후에 더 강화하였다. 교회 건물을 수리하거나 개조하기 위해 공식 허가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렵다. 압수된 많은 교회 건물, 신학교 또는 학교는 반환되지 않았다.

지정된 교회 시설 이외의 조직 활동은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로 간주되므로 지방 공무원과 지역 사회 모두에 의해 방해 받는다. 이것은 쿠데타와 뒤이은 비상사태 이후에 어려운 일이 되었는데, 의심스러운 모든 행동이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개적으로 개종자를 기존 교회에 통합하는 일은 주로 지역 사회에 의해 어렵게 된다.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지도자를 교체할 때 비록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적 위치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를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 자료는 터키 언어로 이용가능 하지만 배포는 자동으로 전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하다. 교회 지도자들이 비자를 얻는 것은 어렵다. 많은 외국 종교인들이 비자를 거부 당하거나 체류 허가가 갱신되지 않는다.

폭력

폭력의 수준은 WWL 2017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높다. 보도에 따르면 3명의 레바논 기독교인이 이스탄불에서 새해 전날 밤 공격으로 사망했다. 터키의 남동부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여러 건물이 손상되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재산이 터키 국가에 의해 압수된 후에도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목사 앤드루 브런슨(Andrew Brunson)목사의 지속적인 구금은 터키의 개신교 기독교 공동체에 충격을 주었고 몇몇 다른 기독교인들은 터키를 떠날 것을 강요당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상황이 여전히 걱정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 중 일부는 가족으로부터의 반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겨야만 했다.

터키(Turkey)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종교적 상황

엄밀히 말해 비종교 국가에 속했던 터키가 현재 이슬람 규범과 가치에 바탕을 둔 국가로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세속주의가 팽배할 당시 터키의 기독교 신자들은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세속주의를 국가관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의 현 정권아래에서, 세속주의는 꾸준히 감소하고 현재는 좀더 확고한 이슬람 영향력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1923년 로잔법률을 근거로한 터키법률에 따르면, 오직 네 개의 종교단체(수니파,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유대교)만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종교가 공문서 예를 들어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되는데 이를 대체할 유일한 다른 대안은 종교향목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터키법률은 사교육에서 성직자 교육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 세미나는 강제 폐쇄되었고, 현재까지 그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로잔법률로 인해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지역사회는 여전히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종교기관의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는 교회 구내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리문답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하다. 물론 터키 신자들은 어떤 기관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목사와 리더를 훈련시키기 위해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법이 제멋대로여서 신자들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터키법률은 오직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교회로 지정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로 사용될 목적으로 종교단체에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지 주민들의 종교적성향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치 및 개인적인 성향에 달려있다.

비 이슬람교도들은 암묵적으로 관료직과 군대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군에 근무할 때 상관은 그들의 종교를 확인하고 보안검사를 따로 실시한다. 군 간부와 지방장관 및 시장들 중에는 비 이슬람교도들이 없지만, 터키 역사상 최초로 2011년 6월 선거에서 시리아 정교회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

개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이슬람에서 기독교 또는 기독교의 한 종파에서 다른 종파로 개종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족간의 감시로 인해 신자들은 때때로 이중 생활을 하며 개종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뿐만 아니라 기도과 성경, 기독교 잡지 그 외 기독교 방송과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숨긴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료 신자들을 만나는 것도 종종 매우 두려워한다.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신자들 특히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공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터 엄중히 감시를 받고 있으며, 때때로 가족들로부터 구금을 당하기도 한다.

정치적 상황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 정권하에서 국내의 정치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바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유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탈피하고 무슬림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총리로 재임했던 그는 2014년 8월 10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16년 7월 15일,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던 쿠데타가 실패하자, 정부당국은 수만 명에 해당하는 군인, 경찰, 판사 정치인들, 언론인, 교사, 이맘 등을 쿠데타 주모자인 굴렌(Gülen)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보복을 가했다. 터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수주의가 새로운 정점으로 치솟았고, 소수민족 특히 쿠르드인들은 새로운 압력을 받고 있다.

사회 경제적 상황

터키의 경제 성장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평균 6.8퍼센트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와서 1퍼센트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하향 5퍼센트의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경제가 2017년과 2018년에 약 3.5퍼센트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년 7월에 발생한 쿠데타 시도와 연관된 불확실성과 지역 내 정치적인 긴장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지출이 억제되고 있다. 하지만 GDP 성장은 매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의 경제는 서쪽 지방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요 도시의 산업에 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는 덜 의지하는 편이지만, 전통적인 농업은 터키 경제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10년 농업 부분이 GDP의 9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산업분야는 26퍼센트 그리고 서비스 분야는 65퍼센트를 차지했다.

많은 신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신분증에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않는다면 민간부분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기독교 단체는 이 나라에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또는 소유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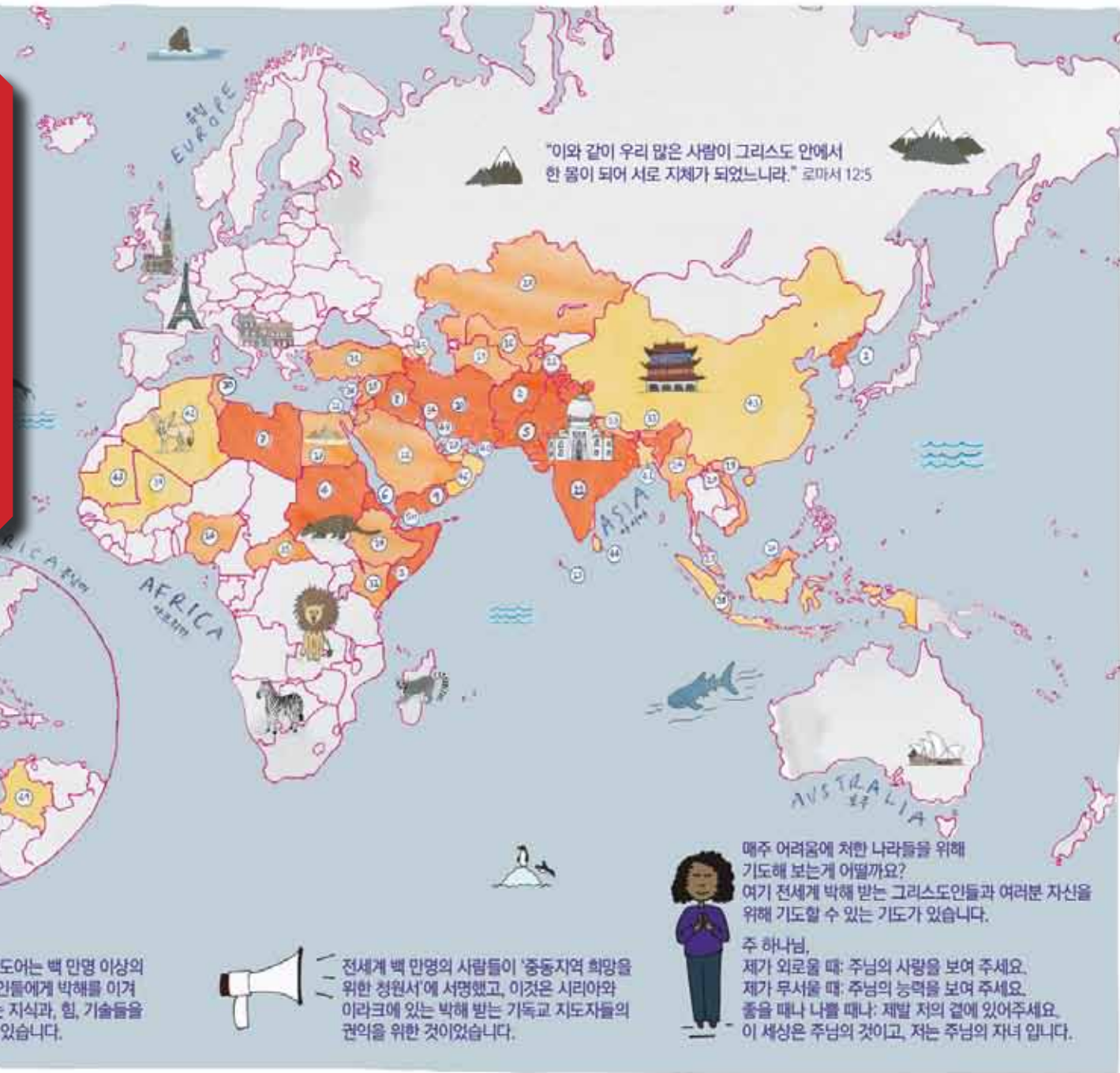


2018년 어린이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여러분의 도움이 시리아의 12,000가구를 살렸습니다!

2018년의 1분기 동안 매달 오픈도어는 시리아의 12,000가구에 식료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최근에 오픈도어의 사역자인 매튜(Matthew)는 알레포(Aleppo)에서 식료품을 나누어 주는 센터를 방문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매튜는 밖에서 보면 다른 건물들과 다를 곳이 없는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는 계단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약 30명의 사람들이 의자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누어 줄 식료품은 파란 봉지에 담겨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들 앞으로는 두 개의 탁자로 나뉘어 그 뒤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다. 식료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소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

들 모두 식료품과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특별히 매튜가 방문한 날, 연합교회에서는 1,400가구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이 사역에 대한 재정 후원이 줄어들어서 식료품을 나누어 주는 숫자 또한 줄고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특히 비영리 단체들의 후원 중단 요청이 많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재정상황으로 식료품을 적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편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급 중단에 화를 내기도 한다. 교회에서 식료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의료품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마리아(Maria)는 의료품 배포사역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책임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의료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여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방전을 가져오고, 자원 봉사자들은 최대한 약국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가져다 준다. 약 13곳의 오픈도어 협력팀이 의료품을 보급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배포사역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가끔 이들을 교회 예배 시간에 초대한다. 보통 50명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그들에게 간식을 준다. 그들이 식료품과 의료품을 받았다고 오는 것은 아니었다. 보급품을 받는 첫 번째 순서는 난민이다. 그리고 난 뒤 자원봉사팀은 일반 지역민들을 돌보게 된다. 그들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으며, 몇 명의 노인들이 있으며, 가족에게 어떠한 중병 또는 만성적인 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3세 이하의 어린이와 새롭게 출산 될 아기는 없는지도 살피게 된다. 그 후 자원봉사팀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방문하게 된다. 그들의 집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파악하고, 특히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을 살피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몇 년 동안 시리아 밖에서 난민으로 살다가 이곳에 돌아와서 무너진 집을 보면서 수리가 필요하지만 수리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료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다. 이곳은 조지(George)가 책임을 맡은 곳으로 그는 6명의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을 구매하고 이것을 배포하는 기준으로 포장하는데 까지 16일에서 17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쪽 벽 편에 2kg의 설탕자루와 쌀 그리고 콩 자루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식료품을 저장하는 양은 물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들은 주로 50kg 자루를 사서 봉사자들이 작은 가방에 나누어 담는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리아에서 대부분의 음식이 공급 가능한 상태이다. 전쟁 때 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전이 있어도 식료품을 조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배포가 가능하다고 한다. 압달라(Adallah)의 교회는 시리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돕는 교회로 2018년 1분기에 총 12,356가구를 도왔다.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낮은 숫자이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사람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소망센터를 열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2018년 1분기 때 시리아에 있는 지역 협력 단체들은 식료품 보급에 \$793,260과 의료품 보급에 \$61,688, 난민들에 집세 보조로 \$9,500, 필요한 옷을 사도록 돕는 곳에 \$28,750을 사용하였고, 연초에 집을 따뜻하게 할 연료를 구입하는데 \$60,000을 사용하였다.

아직도 시리아에 식료품 보급이 필요한 이유

시리아에서 약6백8십만명이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었다. 대부분이 그들의 집과 소유를 잃었고, 직장과 소득을 잃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난민으로 생활하는 동안 실업이 지속되고 그러면서도 집세를 내야 하기에 그들이 저축했던 모든 돈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난민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시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조차 직장을 잃었고,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전쟁 전후의 물가 상승률이 9에서 10배로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이전에 비해 아주 조금 올랐을 뿐이다. 특히 노인들은 그들을 돌보든 가족들이 나라를 떠난 경우가 많다. 떠난 이들이 나라밖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리아를 떠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주로 18세에서 45세이다.



주님께서 재소자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해 어떻게 벌들을 사용하셨나?



이브게니(Evgeny)는 8살때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다. 그는 와인을 사기 위해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갔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그는 태어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자랐다. 나이가 들자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감방에서 9년 동안 지내야만 했다. 그가 수감되었을 때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숙모가 그에게 신약성경을 전달해 주었고 몇 주 만에 그는 신약성경을 통독하였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 이곳 저곳에서 들리거나 개구리들이 나왔고 먹을 것이 거의 없어서 여기 저기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 다녀야만 했다. 또한 교도관들이 매일 폭행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비록 그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글을 잘 읽을 수도 잘 쓸 수도 없었지만 성경을 매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감옥에 가끔씩 찾아오는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는 또한 기독교 영화나 음악 등을 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회개하라.' 그는 기도하기 위해 한 장소를 찾았고, 그곳에는 한 남성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난 그들은 가까워졌고 서로를 위해 종종 기도해 주곤 하였다. 이윽고 이브게니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평생 주님만을 모시겠다고 마음을 굳히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이브게니는



거듭난 자신의 삶에 아주 기뻐했고 교도관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브게니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심지어는 몇 명의 교도관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폭행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브게니 뿐이었다. 교도관들은 이브게니의 기도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은 침례교인들간에 부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 침례교회에 출석하면서 차후에는 출소한 90%의 수감자들이 목사가 되었다. 이브게니도 감옥에서 출소 후 여러 감옥을 돌면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중범죄 구역에 갔는데 그곳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결핵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많은 죄수들은 그가 감옥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동했고 그의 돌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브게니는 오픈도어에서 운영 중인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비록 그는 양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적어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벌을 키우며 꿀을 만드는데 대해 교육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으며, 미화 5,000달러를 지원받았다. 3,500달러는 벌집이 들어있는 수레를 사는데 사용했고 1,500달러로 꿀벌을 샀다. 그는 양봉사업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5년 동안 그는 빌린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지금은 5명의 정직원을 고용한 회

사가 되었다. 만들어 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주문이 밀려들어올 정도로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또한 이브게니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두 곳의 남성을 위한 재활원과 한곳의 여성 센터를 방문하여 사역을 했다. 남성들의 재활원은 대부분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재활하는 곳이었다. 그들은 야채를 키우거나 닭이나 토끼를 기르며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여성들을 위한 센터에는 여성노숙인 뿐 아니라 하루 하루 일을 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를 가진 젊은 가난한 여성들도 많았다. 이브게니는 그들에게 방문하여 음식을 주고 찬양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였다. 남성들을 위한 재활원에서 남성들은 꿀벌 프로젝트를 위한 벌집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고 이것은 어떻게 한 프로젝트를 다른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2017년 봄 산악지역에서 큰 홍수가 터져 15개의 가옥이 쓸려나갔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15가족이 집을 잃고 정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양봉사업의 이윤으로 이브게니는 15가족을 또한 도울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역 이외에도 이브게니는 지하교회 한 교회의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켰으며 그의 동료(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산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의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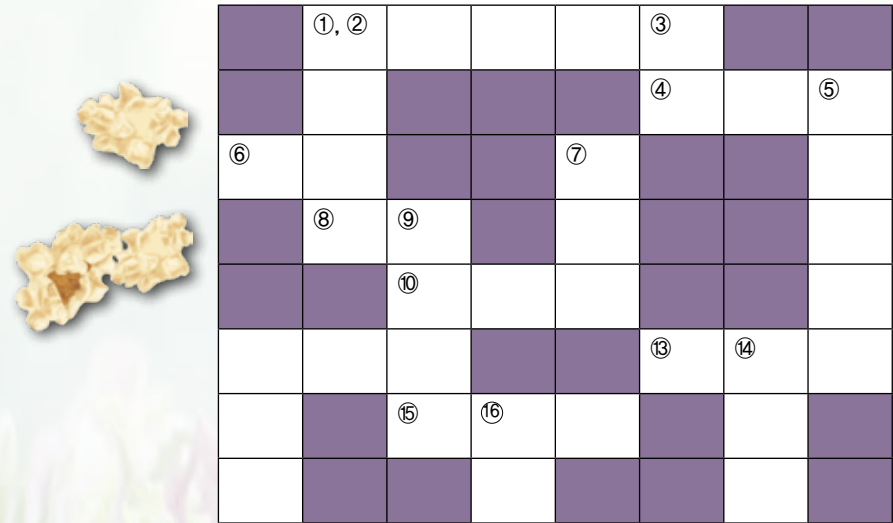
박해 순위 50개 국가의 총인구는 약 48억9천만 명,
이중 기독교 인구는 약 6억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 33%인 약 2억1,500만 명이
신앙 때문에 높은, 또는 극단적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오픈도어참여' 클릭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 박해퍼즐



가로열쇠

1. 주님이 준비하여 주심(창세기 22:14).
4.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부터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성경을 알지 못했다(사도행전 18:25).
6. '하나님(여호와)은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 음역이다(마태복음 1:21).
8.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26)
10. 사도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11. 다윗의 이종누이의 아들로서 요압과 같이 일생을 통하여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다(사무엘하 2:78).
13. "○○○중의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마가복음 5:22).
15. 신앙성경 중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로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쓰여짐.

세로열쇠

2. '여호와와 구원' 이란 뜻으로 에브라임지파 눈의 아들. 본명은 호세아다(민수기 13:8).
3. 라반의 장녀로 라헬과 자매간이다. 라반이 속여서 야곱에게 시집보냈다(창세기 29:23).
5.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라고 부탁드렸음 (누가복음 7:7).
7. 솔로몬이 그 노년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회복에서만 영원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
9.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
12. 솔로몬이 솔라미 여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14. "마침 삼손은 싱싱한 ○○○ 떡뽕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블레셋 사람을 천 명이나 쳐죽이고 나서" (사사기 15:15, 새번역)
16. "전대나 배방이나 ○○○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누가복음 10:4)

■ 지난호 정답 ■

	리		김		열	므	나
아	브	라	함			낮	
마	가			브	엘	세	바
사		요			리		
		안		⑪	바		
나	다	나	엘		스		
	시					셀	
미	스	바		이	스	라	엘

■ 지난달 당첨자 ■

이강현, 이화진, 송성희 님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 (2018년 8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진행되는 오픈도어 지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픈도어 지역 모임

- 후원자, 300 기도용사, 300 후원이사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벤트 및 공지사항' 으로 접속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opendoors.or.kr

오픈도어가 새로운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 좋은 공간을 알고 있는 분이나,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 02)596-3171

메일 : odsk@opendoors.or.kr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 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 만 명이

국내살항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 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 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63-099071-02-10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8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